

정부,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시 '특례'

15일까지 사직처리·결원 확정 요청 광주지역 전공의 미복귀 입장 고수

정부가 5개월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의 교수들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의정감등 회복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자리를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공의와 광주의 상급병원의 대교수들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대 병원의 한 의대교수는 "오는 인사를 하러 온 전공의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지는 않지만 미복귀쪽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에 15일까지 사직처리를 할 방침이다.

사직서 처리 시점은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9월 전공의 모집에 새로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

이다. 결국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TO)이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 집계결과 지난 5일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1만506명 중 63명)에 그쳤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채용시키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문이 추가 시험도 검토하고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 있다.

정부는 9월 모집을 통한 비수도권 전공의의 수도 관행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9월 모집은)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오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6대 4에서 5.5대 4.5로 조정했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2만4300원 ↑

보험료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

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

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 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국립의대 선정 작업 '본격화'

설립방식·사전·평가심사 등 3단계 진행...10월 정부에 추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인 지평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통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

하고 전남도는 해당 대학을 올해 10월까지 정부에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절차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한 뒤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평가심사위원을 확정 한 이후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위원회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환경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도 실시하고 대학이 용역 주체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실증도시 도약

5년간 국비 100억 등 185억 투입

광주시가 생체이식형 융합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골대체 융합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골결손 부위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해 골대체 융합 의료기기의 핵심기술인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사업화 전기를 지원한다.

노인성 질환과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골결손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면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환자의

수술 안전성 확보와 회복 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맞춤형으로 제작한 골대체이식 인공관 등 은 반영구적이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할 획기적인 미래 의료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상의 주도의 실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이 주관해 기업 지원공간과 장비 운영, 사업관리 등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남부대학교, 건양대학교가 공동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략수립,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민관협치 '건설현장 품질관리' 상담 진행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위원과 함께 건설현장 품질관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공정률 50% 이하인 서구 마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5 곳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무원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선다.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발주자,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사 추진 중 문제점과 대안 제시 등 맞춤형 품질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

로 조언한다. 또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에게는 품질-시공-공정-안전에 대한 지도 방법 등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현장관리교육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 주도형으로 출범했으며, 계획(P), 실행(D), 평가(C), 제도개선(A) 분과별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문제점을 검색(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정책들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통 신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닛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대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무시 소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적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이름다운 자연환경 함양!

대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 합병 공고

2024년 7월 5일 주식회사 그린오앤엠(갑)과 주식회사 호남전력(을)은 각 임사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사업 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갑) 주식회사 그린오앤엠 (GREEN ONM Co.,Ltd)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중의로 1926, 305호
(대산광동프라자)
대표이사 여국동

을) 주식회사 호남전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8
대표이사 박석운

채권신고공고 (2차)

본 호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4년 7월 5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있는 분은 2024년 9월 10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24년 7월 9일

호산산업개발 주식회사 (180111-0579384)
전남 광양시 금영로 141 (광영동)
청산인 윤인호

先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경원 일렉트릭(이하(을)이라 한다)은 2024년 7월 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사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환금 530,209,900 원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 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로서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 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 권을 분할해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7월 9일

갑) 주식회사 이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303번길 117-34 (충동)
대표이사 정태현

을) 주식회사 경원일렉트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228길 7, 2층 235호(쌍문동)
대표이사 유건준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